

제4회 대한상공회의소 · 포브스 사회공헌부문 대상 수상

- 지역맞춤형 사회공헌 활동 공로 인정 -

경영지원실(실장 이계환)에 따르면 공단이 '제4회 2013 대한상공회의소 · 포브스 사회공헌부문'에서 지역사회공헌 대상을 수상했다. 그간 공단은 철로변 소년소녀가장(KR소년단) 장학금지원 사업, KR소년단 철도문화 체험, 농기계 수리, 소외계층 청소년 공부방 학습지도, 쪽방마을 식사제공 행사 및 주택개선사업,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지역농촌마을 1사촌 봉사활동 등 지역에 특화된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시행해 높이 평가 받았다. 본부는 앞으로도 김장나눔 행사, 연탄배달 등 실질적이며 참여중심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울산 복선전철 4개 공구 노반공사 발주

- 4개 공구(좌천~덕하, 26.6km) 총 공사비 4497억원 -

경영지원실(실장 이계환)은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복선전철사업구간(72.1km) 중 울산구간 4개 공구(좌천~덕하, 26.6km) 노반공사(총 공사비 4497억원)에 대한 계약자 선정을 위해 9월 10일 입찰 공고했다.

이번 입찰은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에 따라 전문공사업체가 공동계약자로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지역업체 및 중소기업 참여 가점제, 1개사에 중복낙찰을 허용하지 않는 1社1공구 낙찰제도를 적용한다.

또한, 지난 7월 불공정 입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개정된 최저가 낙찰제 심사기준(공공기준금액을 예측하기 어렵도록 설계금액에서 예정가격으로 선정기준 변경, 공중평균입찰금액 산정 시 제외범위 확대 등)을 적용하여 입찰금액 및 물량 산출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거쳐 11월 중 최종 낙찰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구간 복선전철사업이 완료되면 부산~울산간 열차운행시간이 크게 단축되고(80분→약45분), 열차운행능력이 1일 왕복 38회에서 138회로, 시간당 열차투입 횟수도 1회에서 6회까지

늘어나며, 현재 공사 중인 부전~마산복선전철, 동해중부선(포항~삼척) 및 중앙선(청량리~영천)과 연계되어 철도교통을 이용한 전국 주요 도시 간 접근성이 대폭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복선전철사업>

재고자재 활용으로 42억 4000만원 예산 절감

기술본부(본부장 임영록)는 2012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공사 철거품 등 재고자재를 재활용하여 42억4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재고자재는 기존선 철거 및 개량 시 발생된 철거품과 철도 건설사업 규모 합리화로 발생한 잉여 자재로, 2012년부터 재사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2013년 상반기에만 2억5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현재 공단에서 보유 중인 사용가능한 건설자재는 232종, 83억6000만원 규모로, 경춘선·경원선·전라선 복선전철 등 철도 노선 개량사업 추진 중 철거된 중고 분기기 및 가동브라켓 등 167종(36억4000만원), 역사 배선규모 축소 및 계획 변경 등 사업규모 합리화로 발생된 신품 분기기 및 변압기 등 65종(47억2000만원)이다.

전철전력차는 규모 및 계획 변경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건설사업 초기에 일괄로 구매하던 방식에서, 필요 시 반입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현재 보관 중인 재고자재는 부산~울산, 울산~포항, 원주~제천 건설사업에 적극 사용할 계획이다.

법률 고문 위촉 시 공개 모집 시행

기획혁신본부(본부장 김영우)는 주요 소송 대리와 자문을 위해 위촉하는 법률 고문을 공개모집하고, 청렴성 검증을 거치는 등 위촉·운영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절차를 마련한 소송사무처리규정을 개정·시행한다.

개정된 규정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법률 고문 위촉을 위해 공개모집하고, 내·외부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청렴성 검증과 평가를 거치는 한편, 퇴직 임직원은 1년 이내 법률 고문 위촉에서 배제해 전관예우를 사전에 차단토록 했다.

또한, 법률 고문 위촉 시 청렴서약서를 징구하고, 비위행위 및 품목수수 등 품위를 위반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촉 기간 동안 소송 수행 및 법률 자문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점수가 저조한 경우에는 재위촉을 제한하고, 최장 위촉기간(6년)을 정하여 과도한 장기 위촉을 방지토록 하였으며, 법률 고문 위촉현황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구창서 법무처장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법률 고문의 운영이 보다 투명해지고, 전문성 있는 변호사로부터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공단 업무의 적법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석 전 철도 건설업체 임금 및 장비대금 체불 33억원 지급 조치

기획혁신본부(본부장 김영우)는 추석 전 건설업체 체불 해소를 위해 철도건설 30개 현장을 대상으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점검한 결과, 12곳 현장의 13개 업체에서 불공정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본부는 표준계약서 미사용 3건, 하도급율 산정 부적절 3건, 근로계약서 미작성 1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했으며, 임금 및 장비대금 33억2100만원을 추석 전에 지급토록 했다.

점검 결과 하도급업체의 자금난과 부도 등 경영 악화에 따른 임금 및 대금체불이 일부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지만, 본부는 장비업체 및 일용직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조속히 해결해 근로자들이 풍성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우선 조치했다.

본부는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매월 정기적으로 하도급 실태를 점검하고, 불시에 특별 점검을 시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현장을 관리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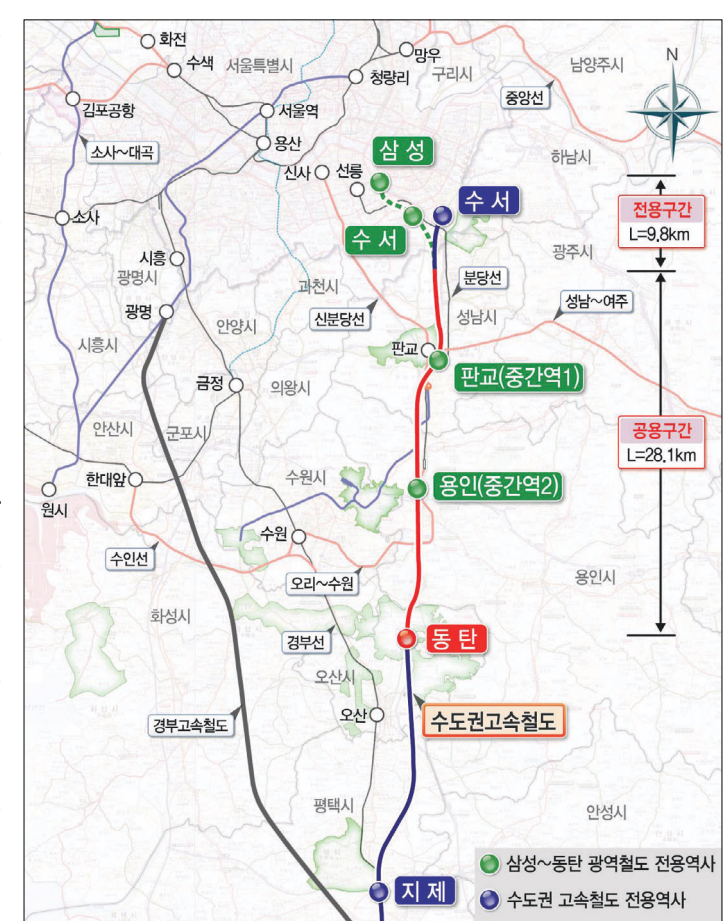
삼성~동탄간 광역철도건설 기본계획 수립 착수

기획혁신본부(본부장 김영우)는 9월 9일부터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하여 오는 12월까지 고시할 계획이다.

삼성~동탄간(37.9Km) 광역철도는 동탄2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건설되며 동탄, 용인, 성남, 수서, 삼성 등 5개 역사를 신설하되 수도권 고속철도의 일부인 수서~동탄 구간은 공용선로로, 삼성~수서 구간은 광역급행철도 전용선으로 건설된다.

본부는 2009년 3월 수도권 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삼성~동탄간 광역철도의 경제성(B/C 1.05)이 확보되고, 비용절감을 위해 철도산업위원회에서 수도권 고속철도와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의 선로공용 및 동시시공 방침이 의결됨에 따라 후속절차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본부 관계자는 "2015년에 완공 예정인 동탄2 신도시에 입주하는 11만5000세대의 28만5000여 명이 광역철도를 이용할 예정으로, 강남(삼성역)까지 20분 안에 접근이 가능해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망우선 망우~광운대역간 종합시험운행 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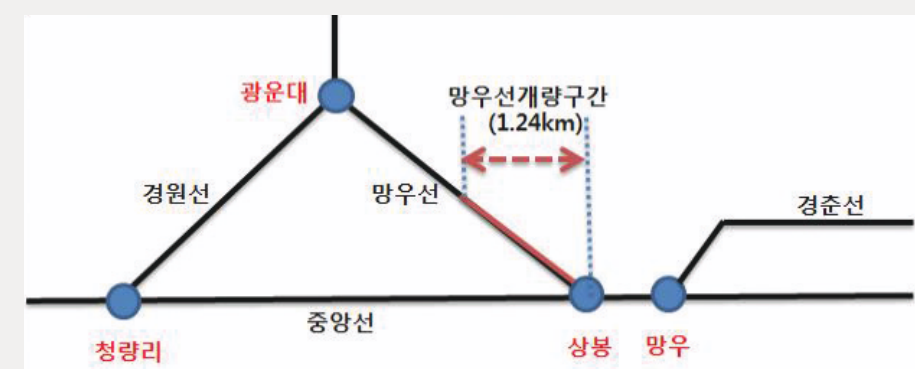
- 상봉역에서 중랑천교량(1.24km)간 교량화 공사 완료 -

기술본부(본부장 임영록)는 망우선과 중앙선간의 선로높이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망우선 상봉역~중랑천교량 구간의 교량화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9월 23일부터 9월 26일까지 4일간 종합시험운행을 시행했다.

망우선의 상봉역~중랑천교량(1.24km) 구간은 중앙선 선로보다 최고 2.5m나 낮은 급경사 구간으로, 22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높이가 낮은 토공구간을 교량으로 개량함으로써 두 개 노선간 선로 높이를 맞췄다.

수송계획처는 "망우선 선로를 높이면서 이를 교량으로 시공하여 열차의 안전운행이 확보되었을 뿐 아니라, 철길로 동선이 단절되었던 중화동 일대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부는 망우역에서 광운대 역까지 4.7km구간에 전동차를 투입하여 종합시험운행을 완료했으며, 향후 상봉역에 시·중착하는 경춘선 전동 열차 일부를 광운대역까지 연장운행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 행복주택 오류동·가좌지구 설계관리 업무분담 협약 체결

- 철도운행선 상부 인공지반구조물 설계 협력 추진 -

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류동 및 가좌지구 행복주택사업을 위해 철도운행선 상부의 인공지반*구조물 설치에 대한 설계관리를 공단이 담당하는 업무분담 협약을 9월 13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오류동 및 가좌지구의 철도운행선상 인공지반 구조물 설계 업무 분담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품질 및 공정관리를 효율화하여 설계관리를 차질 없이 수행함으로써 연내 착공 할 수 있게 됐다.

공단은 철도운행선 상부의 인공지반구조물 설계의 품질관리와 공정관리를 수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및 공공시설물 설계를 수행하여 철도운행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사업비 절감과 공사기간 단축 등 행복주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도 두 기관은 상호 협력하여 연내 착공(2017년 입주) 예정인 오류동(약 1500세대) 및 가좌(약 650세대)지구 행복주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수도권 서민 주택난 완화에 기여할은 물론 서민복지, 일자리, 문화, 공공생활의 중심점으로 도심의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오류동지구 행복주택사업 조감도>

* 인공지반 : 철도운행 구간 상부를 효율적으로 활용(공원, 건축물 등을 설치)하기 위해 토지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구조물을 설치하여 만든 데크(DECK)

금호강변 철도교량 하부에 산책로 및 자전거길 조성

- 하천정비사업 연계해 중복투자비 115억원 절감 -

영남본부(본부장 이태균)는 대구선 대구~영천간 복선전철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산시 금호강변에 설치하는 하양고가교 및 부호고가교 하부공간에 산책로와 자전거길(2.5km)을 조성하고 중복투자를 줄여 사업비를 절감할 계획이다.

본부는 대구선 철도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금호강 하천정비사업과 중복되는 하양취수장~하양역 구간에 가설교량을 설치하는 대신 임시로 공사용 도로를 설치하여 2016년까지 사용하고, 공사 완료 후에는 수목 및 초화류를 심어 경관을 조성하고 산책로 및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으로 제공한다.



<금호강변 철도교량 하부공간 연결 위치도 및 조감도>



건설/기술처는 "대구선 철도건설 사업과 금호강 하천정비사업을 연계하여 계획함으로써 중복투자비 115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기관의 사업계획과 중복되는 구간은 연계성 검토를 통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유휴공간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